

정답 및 해설

• 27~29 현대시 •

정답

1	④	2	①	3	③	4	⑤	5	③
6	②	7	②	8	④	9	④	10	①

해설

1. [출제의도]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④ (가)의 ‘복이 따로 있나’, ‘누군 한 평생 / 만년을 사나’, ‘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딴노.’, (나)의 ‘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’에서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화자의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(가), (나) 모두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(가)는 자식과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, (나)는 화자의 독백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(가), (나) 모두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(나)는 민들레에 인격을 부여해 민들레의 긍정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지만, (가)는 ‘수런거리는 감잎’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감잎의 긍정적 속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2. [출제의도]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① [A]에서 겉보기에는 쇠꼬챙이지만 전력을 다해 셋노랑게 꽃을 피운 민들레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므로 강한 생명력이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② [B]에는 아무 곳도 넘보지 않고 혼자 한계 안에서 노력하는 민들레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[C]에는 좁은 틈에서도 곳곳하게 터를 잡고 살아가는 민들레의 강한 생명력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[D]에는 민들레의 실뿌리와 떡잎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

다른 자연물과의 조화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- ⑤ [E]에는 질 수밖에 없음에도 노랗게 피어나는 민들레의 모습이 드러나 있을 뿐,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슬퍼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3. [출제의도] 화자의 태도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③ 1연의 ‘복이 따로 있나’와 그에 대한 동의를 드러내는 2연의 ‘팔자가 따로 있나’를 미루어 볼 때 팔자에 구애받지 않고 달관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려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팔자에 맞춰 사는 삶은 적절하지 않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, ④ 1연의 ‘뚝심 세고 / 부지런하면 사는거지’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.
- ② 3연의 ‘허둥거리지 않고 /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’라는 표현으로 보아 적절하다.
- ⑤ 1연에서 ‘천수답’을 하늘이 물을 대준다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.

4. [출제의도] 외적 증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⑤ 다른 사람들이 ‘어메’와 달리 ‘내 새끼’를 지지해주지 않았는지는 <보기>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<보기>에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여기며 살아가려고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.
- ② <보기>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본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.
- ③ <보기>에서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존재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.
- ④ (나)의 헛된 꿈은 영원히 피어 있는 꿈을 나타낸다. 화자가 그 모습을 보고 ‘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’라고 한 것은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
5. [출제의도] 다른 작품과의 비교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③ ‘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.’에는 반어법이 사용되었다. (나)에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아아,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습니다.’에 영탄법이 사용되었다. (나)의 ‘아 민들레!’에 영탄법이 사용되었다.

- ② ‘속삭이는 햇발’, ‘웃음 짓는 샘물’에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. (나)는 민들레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.
- ④ ‘찬란한 슬픔의 봄’에서 역설법이 사용되었다. (나)의 ‘찌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/ 어떤 자로서도 꺾 수 없다’에 역설법이 사용되었다.
- ⑤ ‘누군가의 가슴에 실려 가는 노래일 수 있을까’에서 설의법이 사용되었다. (나)의 ‘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’에 설의법이 사용되었다.

6. [출제의도] 표현상의 특징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② ‘내 새끼’와 ‘어메’의 대화체를 활용한 것은 맞지만, ‘어메’는 ‘내 새끼’의 삶의 방식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상반된 삶의 방식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깊이’라는 명사로 시상을 종결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③ ‘엄첩구나’, ‘어딴노’에서 경상도 방언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④ 시 속 인물인 ‘내 새끼’가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⑤ 1연과 3연은 ‘내 새끼’가 ‘어메’에게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내용이고, 2연과 4연은 ‘어메’가 ‘내 새끼’를 기특해하고 그의 주장을 동의하고 지지하는 내용으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7. [출제의도] 작품의 세부 내용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② (나)에서 민들레는 찌그만 것이지만 전력을 다해 피고 그 크기를 어떤 자로서도 꺾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절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민들레의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반감을 드러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골계미는 풍자나 해학 등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범주로, (나)에는 풍자나 해학이 쓰이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④ (나)의 화자가 민들레를 예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른 꽃들 중에 제일이라고 비교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(나)에서는 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강한 생명력과 의지로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의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8. [출제의도] 구절의 의미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④ 주어진 한계 안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민들레의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, 벼랑 끝에 내몰린 비참한 모습을 드러

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‘엄첩구나’는 ‘대견하구나’라는 뜻으로 ‘어메’가 ‘내 새끼’에게 기특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.
- ② ‘오냐’라는 긍정의 말 뒤에 3연에서 ‘내 새끼’가 한 말을 반복한 것이므로 ‘내 새끼’의 말에 동의와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.
- ③ 전력을 다해 피어 있는 모습은 민들레의 삶의 의지를 나타내고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를 사용해 이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⑤ 민들레의 길모습은 작지만 민들레가 품고 있는 의지와 생명력이 너무 커서 꺾 수 없을 정도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역설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9. [출제의도]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④ (가)는 열악한 토지인 ‘천수답’을 ‘하늘이 물을 대는’ 토지라고 개성적으로 인식하고 있고, (나)는 ‘민들레’를 ‘질 수밖에 없는’ 운명을 타고났지만 강한 생명력과 의지를 지닌 존재로 개성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① (가)는 자연물에 말을 건네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② (가), (나)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을 뿐,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③ (가), (나) 모두 색채 대비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- ⑤ (가), (나) 모두 대상을 대하는 다른 이들의 태도와 그에 대한 의문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.

10. [출제의도]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

{정답이 정답인 이유}

- ① <보기>에 따르면 열악한 농토를 축복의 땅이라 여기며 달관했을 뿐, 좋은 농토로 바꾼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.

{오답이 오답인 이유}

- ② (가)의 ‘내 새끼’는 ‘천수답’이라는 열악한 농토에서 농사를 지으면서도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므로 운명에 좌절하지 않는 민들레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.
- ③ 질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닳새를 영원처럼 열심히 피어 있는 민들레의 모습은 자신만의 소신을 지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.
- ④ <보기>에 따르면 (나)에는 민들레의 내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.

- ⑤ (가)의 ‘내 새끼’는 3연에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, 부지런히 살고 제 길을 묵묵히 가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.